

국가정원 효과...순천 농산물 해외서도 대박



순천시 농특산물 판매단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온마켓에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의 맛, 남도의 맛'을 테마로 매실과 김치, 고추장 등을 판매하는 모습.



조충훈 순천시장은(왼쪽)이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서 지한파인 마이크 혼다 의원을 만나 환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품에 안고 있는 순천지역 농특산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LA를 비롯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시온마켓 6개 매장에서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 전 품목 매진 등 인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번 시온마켓 한국 농특산물 인기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효과와 생태수도 순천의 깨끗한 물, 공기, 토양, 정원도시에서 자란 음식재료라는 점이 판촉활동에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6개 매장 시온마켓 3억4500만원 판매 실적=조충훈 순천시장은 방문단 일행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도시 순천의 맛, 남도의 맛'을 테마로 미국 시온마켓 LA점, 부에나파크점, 하와이 안가든점, 세리토스점, 어바인점, 샌디에이고점 등 6개 매장에서 판촉활동을 펼쳤다.

이번 판촉활동에는 전국 최대 매실 생산지인 순천 매실제품을 비롯한 남도의 맛갈스런 김치류, 매운 고추장 등 6개 업체(남도식품, 생지들, 순천매실, 씨스타, 매일식품, 담터) 35개 품목이 참가했다.

이번 판촉 활동 등을 통해 3억4500만원 상당의 전 품목이 매진됐으며 현지에서 물품 구매 요청이 쇄도해 현장에서 1억원의 추가 주문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냈다.

◇'1년 100만달러씩' 시온마켓과 협약 체결=순천시와 시온마켓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1년에 100만달러씩 2년간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앞으로

미국 시온마켓 6개 매장 판촉 매실·김치 등 35개 품목 매진 3억여원 매출에 1억 추가주문 조충훈시장 주요 인사들 면담 매년 100만달러 수출 협약도

순천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순천시와 시온마켓의 MOU 체결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시온마켓측에서 미국 전용상품으로 순천 절임배추, 김치양념, 젓갈, 국물 팩 등 다양한 상품 구성을 제안해 향후 판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판촉행사를 계기로 연간 100만달러 상당의 순천 농특산물 수출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시온마켓과 협력관계 유지 및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유기농 및 글루텐 프리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국 주요 인사와 잇따라 면담=지방외교 성과도 돋보여=방문단 일행은 순천 농특산물 판촉활동뿐 아니라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홍보 및 지방외교 활동에도 성과를 나타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판촉 활동기간 캘리포니아주 케빈 데리온 상원 의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케빈 데리온 의장은 "순천시

의 재생에너지, 환경, 생태 순천만국가정원 등에 깊은 관심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계획중인 127개의 공원과 사업에 접목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연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동천숲 조성 등에 대한 자료와 LA시내를 흐르는 강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한 순천시의 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글렌데일에서 아라 제임스 나자리안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시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특히 글렌데일시 시청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평화비(소녀상)를 참배했으며, 지한파로 알려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 의원과도 위안부 문제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주제로 환담을 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순천시의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가히 존경할 만한 정책"이라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는 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지금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자매도시를 통해 소녀상 건립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순천시 등 한국의 도시들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이기도 한 조충훈 순천시장은 "귀국 후 전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혼다의원의 조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대응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11월 8일 남승룡마라톤대회 25일 신청 마감...서두르세요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8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는 순천남승룡마라톤조직위원회의 주최·주관으로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자부심이 한층 높아진 순천시민들과 함께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도시이 그린 대한민국 순천만국가정원을 달려보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지나 순천만의 황금 갈대 등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로 짜여졌다.

코스는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로 구성됐으며, 풀코스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정식 마라톤코스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대상(1~20위)과 하프코스 단체(4인), 대항전(1~5위), 최다단체 참가상(1~5위), 초·중·고 남녀부별(1~3위), 부부참가자는 완주기념패 증정 등의 상상이 주어진다. 특별상은 고 남승룡 선생이 올림픽 3위를 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풀코스·하프코스·10km에서 해 각 33위와 333위에게 지역 특산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회 신청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순천남승룡마라톤 홈페이지(<http://scmarathon.or.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은 순천시 스포츠산업과(061~745~5008~9)에서 안내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 중국어교육 선도지역으로 10개 학교 원어민 교사 연수

순천이 중국어 교육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이중학교 등 10개 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전담과 생활 안정을 위한 협의회'를 비롯한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 중국어 교육 선도형'으로 지정된 순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순천지역 중국어 원어민 교사들은 소속 학교에 근무하면서 황전초 외 5개교의 소규모 학교들도 순회 교육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원어민 교사들은 교과과정,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순천지역 학생의 글로벌 세계시민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순천지역 초·중학생 81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중국문화 체험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및 중국의 문화를 테마별로 다양하게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만족도를 높였다.

순천신흥중 중국어 담당 이지현 교사는 "순천지역 학생들이 원어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회화를 배우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중국어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수 순천교육장은 "순천지역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중국어 학습과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